

【ㄷ】

다게레오타이프 (Daguerreotype)

다게르가 1837년에 발명한 사진법이다. 은판의 표면을 거울과 같이 잘 닦고 요오드 증기를 쬐면 은판의 표면에 담황색의 요오드은(AgI)층이 생긴다. 이것을 카메라에 장치하여 촬영하면 빛이 닿은 부분에 잠상(潛像, latent image)이 생긴다. 다음에 이 은판을 수은증기에 쬐면 노광된 광량에 비례하여 수은증기가 은판면의 잠상 위에 흡착되어 잠상이 나타난다. 이어서 하이포로 정착하면 선명한 은회색의 사진이 된다. 이것을 다게레오타이프 또는 은판사진이라 한다. 감광판을 빛에 쬐어 잠상을 만들고 현상과 정착을 하여 사진을 만드는 현대사진술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다게르 (Daguerre, Louis Jacques Mand'e 1789~1851)

프랑스의 화가이자 사진기술자로 다게레오타이프의 발명자이다. 1839년 이후 니에프스와 공동으로 사진연구를 하다가, 니에프스가 죽은 후, 단독으로 연구를 하여, 1837년 요오드화은의 감광성과 수은증기 작용에 의해 은판 위에 화상을 촬영하는 다게레오타이프를 개발하였다.

다면노광 (多面露光, multi exposure)

집관 공정에서 동일 감광재료에 2회 이상의 노광을 하는 일이다. 컬러 등의 집관 작업에서 각 색의 분해 네거티브나 평조망 등을 각 마스크마다 붙이고 각 색마다 반복 노광하여 색판의 집합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필름을 만든다. 다중노광이라고도 한다. (유의어 : 다중노광)

다우식부식법 (Dow式腐蝕法, Dow etch process)

아연, 마그네슘 및 동판을 판재로 하여 선화 볼록판, 망볼록판 또는 양자를 조합한 이른바 콤비네이션판을 신속히 부식하는 미국의 다우 케미컬사(Dow Chemical Co.)의 특허 제판법이다. 사방 울리기를 하지 않고 사이드 에칭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부식기와 부식액을 사용한다. 이 부식법에서는 부식액에 첨가제를 가하여 그 작용에 의해 전체면에 일종의 보호피막을 만든데, 화선의 측벽 이외의 피막은

부식액이 강하게 때림에 따라 떨어져서 액의 부식작용은 수직 방향만으로 진행된다.

다운샘플링 (down sampling)

디지털 이미지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픽셀(pixel) 갖고 있어 나머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전형적으로 선호하는 중요한 리샘플링 방법이다.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인간이 계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면, 색조의 범위(tonal range)라고도 한다. 밝은 빛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의 상태까지 인간의 시각적인 인지 능력은 약 6등급 또는 10에서부터 여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 특히 컬러를 인지하는 것은 시각적이고 환경적인 상태에 의존한다.

다이렉트 메일 (direct mail)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직접 우송하는 선전 인쇄물이다. 카탈로그, 하우스오건(house organ), 폴더, 팸플릿, 북릿(booklet) 등에서부터 작은 것으로는 리플릿(leaflet), 전단 등이 있다. 신문광고, 방송, 포스터 등의 선전에 비해 대상이 확실하여 상대방에게 강한 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이렉트 액세스 (direct access)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자료가 어떻게 분류되어 어느 위치에 기억되어 있는가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데이터를 읽어 내거나 기록해 넣을 때 호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가장 최근에 다루었던 데이터의 기억위치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직접 접근방식을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기억장치로는 자기디스크와 자기드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순차적 호출도 가능하다. (유의어 : 직접호출, 직접접근)

다이렉트 인풋 (direct input)

컴퓨터의 데이터입력을 발생장소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즉, 발생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전신, 전화선 등의 데이터 통신설비로 연결하여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방식이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방식에서

사용된다. (유의어 : 직접입력)

다이렉트 제판 (direct 製版, direct plate making)

판고 등의 선화 원고나 거친 망점으로 된 반사 원고에서 카메라작업 등의 중간 공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평판)을 만드는 방법의 총칭이다. 필름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법이며, 간단한 조작방법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경인쇄(평판오프셋이 주류)용의 종이를 베이스로 한 판(마스터 페이퍼라고 함)을 만드는 일이 많다. 직접 제판, 직접 인쇄판이라고도 한다. 다이렉트 제판의 원리에는 전자 사진적인 방법과 폴라로이드(polaroid) 사진과 같은 은염 사진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사진적인 방법은 제로그래피나 일렉트로 팩스와 같은 복사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두꺼운 종이에 토너라고 불리는 지방산 가루를 부착시켜서 화선부를 만든다. 은염 사진에 의한 방법은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 조각에 젤라틴의 경화막이나 금속은의 피막을 형성하여 화선부로 한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에 내쇄력은 일반적으로 10,000부에 달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다. 어느 방법이든지 간단하게 판을 만들 수 있도록 제판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으며, 원고를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판이 완료된다. 새로운 타입의 다이렉트 제판장치에는 단순히 제판만이 아니라 인쇄까지 자동화한 사무용 시스템 기기로서 시판되고 있는 것도 있다. 경인쇄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제판에 대하여 레이저광을 사용하여 소형사이즈의 35mm 필름 원고에서 직접 PS판의 판면을 주사 노광하여 화상을 만드는 것도 개발되어 있다.

다이크로익 미러 (dichroic mirror)

특정한 파장범위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 흡수하여 원하는 파장 범위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반사경이다. 평면유리에 금속물질이나 비금속물질의 얇은 막을 다층으로 진공 증착(蒸着)하여 그 간섭을 이용한다. 스캐너나 텔레비전 카메라의 3색 분해에 이용된다.

다이트랜스퍼법 (Dye transfer process)

미국의 코닥사(Eastman Kodac Co.)가 발표한 염료 전염에 의한 컬러프린트법의 일종이다. 컬러리버설 필름에서 3색 분해한 네거티브를 만들고, 그것을 매트릭스 필름에 노광하여 태닝 현상, 정착, 수세하여 릴리프상을 만든다. 만들어진 3매의 릴리프상을 시안(cyan), 마젠타(magenta), 옐로(yellow)의 염료액에 담가 염색한 후, 1매의 전염지에 3색의 화상을 차례로 전염하여 컬러 포지티브상을 만든다. 또 컬러 네거티브 필름에서는 3색 분해 필터를 사용하여 펜크로판 매트릭스 필름에 노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컬러 포지티브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중처리 (多重處理, multiprocessing)

일반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CPU가 같은 제어프로그램하에서 같은 기억장치를 공유하여 둘 이상의 작업(task)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다중처리 형태는 하나의 CPU가 다수의 특수 목적 처리기, 즉 입출력처리기(또는 채널)를 제어하는 주종(master/slave)형의 기법인데, 이 기법은 출력장치를 제어하며 주기억 장치를 직접 이용(DMA)할 수 있어 주 처리기의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터럽트 처리에 따른 주 처리기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유의어 : 멀티프로세싱)

다중처리시스템 (多重處理 system, multi-processing system)

제어 프로그램은 하나이지만 복수의 CPU를 갖고 CPU,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하나의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각 CPU가 다른 기능을 분담 병행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나의 CPU에서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처리 기능과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합하다. (유의어 : 멀티프로세싱시스템)

다층평판 (多層平版, polymetal plate, poly-metallic plate)

다른 종류의 금속을 2중, 또는 3중으로 도금하여 판재로 한 평판이다. 재래식의 아연 평판과 알루미늄 평판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내쇄력이 있다. 화선부에는 친유성

금속을 비화선부에는 친수성 금속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차례에 있어서는 수소보다 낮은 금속은 친수성 경향이 강하다고 하며, 이들 친수성 금속에는 알루미늄, 크롬, 철, 니켈, 아연 등이 속한다. 이에 반하여 수소보다 높은 금속은 친유성이 강하다고 하며, 이들 친유성 금속에는 동, 은, 금 따위가 이에 속한다. 1890년경 독일의 코팔(Kofahl. H.)이 아연판 표면에 동도금을 하여 2중 바이메탈 평판을 개발한 이래, 점차 실용화되어 1940년에는 알루미늄 판면에 동도금을 한 독일의 호른(Horn. M)의 아르크프린트 바이메탈 평판과 1936년에 스테인리스스틸에 동도금을 한 덴마크의 알러(Aller C. B)이 알러 바이메탈 평판 등이 제일 먼저 실용화 되었다. 다른 평판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인쇄품질이 뛰어나고 내쇄력이 크므로 고급 인쇄물 외에 신문의 색도인쇄, 교과서 등의 대량인쇄물에 이용하며, 특히 고속 두루마리지 오프셋 운전기에는 내쇄력이 크므로 널리 사용된다.

단말기 (端末機, terminal)

① 디지털 자료 전송 시스템에서 자료를 만들거나 보기 위한 기기, 또는 자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사람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자료 처리의 기본 기기를 가리킨다. ② 정보가 통신망에서 입출력되는 지점이다.

단색광 (單色光, monochromatic light)

스펙트럼에 의하여 그 이상의 분해되지 않는 단일 파장의 빛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소의 폭을 갖는다. 단색광을 얻는 데는 알코올램프 또는 분첸버너의 불꽃 속에서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을 태워 얻는 방법이 있다. 염화나트륨에서는 황색광(589nm, 589.6nm), 염화리튬에서는 적색광(670.8nm), 염화칼륨에서는 녹색광(535.1nm)이 얻어진다. 또 석영수은등에 적당한 필터를 걸어 수은 스펙트럼 중의 어떤 단색광을 잡아내는 방법, 혹은 단색광기를 사용하여 광원을 적당히 선정할 후 임의의 파장을 가진 단색광을 얻는 방법 등도 있다.

단색광 필터 (monochromatic filter)

스펙트럼 속의 어떤 한정된 좁은 파장의

광만을 투과하는 필터이다. 현미경 사진에서 렌즈의 색수차를 없애기 위해 또는 색채 명암의 콘트라스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단색망 (單色網, monotone)

사진이나 그림 따위의 연속계조 원고를 단색의 망화상(網畫像)으로 만든 것이다.

단색스캐너 (monochro scanner)

단색 제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의 전용 스캐너이다. 초기에는 신문업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컬러제판 분야의 스캐너화에 따라 기능 제고와 고품질화가 진전되어 상업 인쇄업계에도 보급이 현저하다. 입력 원고는 사진, 선화, 문자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출력은 단순한 CTS의 화상 입력용의 기종에서부터 연속계조 출력(선화)이나 망점 출력까지 다양하다. 형식은 평판(flatbed)형이 주류로 되어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하이라이트, 색도의 세트업(set up)에서 계조보정 커브의 선택, 샤프니스의 설정까지 가능한 타입이 많다. (유의어 : 모노크로스캐너)

단선스크린 (single-lined screen)

가는 평행선의 제판용 스크린이다. 이것을 이용해 선의 크기의 변화로 농담을 표현한다. 이 스크린으로 한 번 노광하고 이어 스크린이 직각이 되게끔 겹쳐 다시 한번 노광하면 크로스 스크린(cross screen, 십자스크린)이 만들어져 보통의 망점 스크린으로 촬영한 것과 같은 망네거티브를 얻을 수 있다.

단어 (單語, word)

문법상의 일정한 뜻과 구실을 가지는 말의 최소단위이다. 또한 컴퓨터에서 연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정보의 양이다. 보통 일정한 수의 비트로 이루어지며 컴퓨터의 모든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단위로 하여 수행된다. 보통 단어의 길이는 중앙 처리 장치(CPU) 내의 범용 레지스터의 길이와 같으며 컴퓨터에 따라 다르다. 즉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라는 것은 바로 그 컴퓨터의 단어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개 단어는 몇 개의 바이트가 모여서 이루어지므로 8의 배수인 경우가 많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6비트, 즉

2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양이다.

단조수정 (單調修正, monotone correction)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쇄원고 분석의 결과 픽셀(pixel)의 분포가 불규칙할 때 단조 영역이 넓어져 원고가 최적의 조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단조범위 (單調範圍, monotone rang)

256 바(bar)로 구성되는 히스토그램으로 256개의 농도가 다른 그레이를 나타낸다. 반사, 투과 등의 모든 원고로부터도 작성이 가능하다. 바의 높이는 정해진 영역내에 존재하는 픽셀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하이키(high-key) 원고는 대부분의 픽셀이 밝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농도 영역이 매우 작다. (유의어 : 단조영역)

대지 (臺紙, layout sheet, key sheet)

인쇄 레이아웃을 위한 위치 맞춤 용지를 가리킨다. 주로 다음의 3종류가 있다. ㉠ 책자물을 사진제판에 의해 복제하는 경우에 쓰이는 대지, 사진원고용 조판 가늌표, 페이지 번호, 등기호 따위의 위치를 써 넣는 튼튼한 종이다. ㉡ 다면(多面) 빗썸의 경우에 인쇄판의 빗썸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지, 종이, 플라스틱 시트 따위에 가늌표로서 창을 연다. 이것을 빗썸으로 하려는 판 위에 놓고 이 창을 근거로 굳은 연필로 선을 기입하고 원판 필름의 가늌표와 이 연필선을 일치시켜 빗썸한다. ㉢ 본뜬 전사지를 바른 위치에 붙이기 위해 쓰이는 대지, 여기에는 컬러인쇄맞춤용 가늌표, 표제가늌표, 재단가늌표 따위를 기입해 둔다. 다색의 경우에는 주요 색판에서 인쇄한 것을 대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지작업 (臺紙作業, paste up, page up)

컴퓨터에서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쇄할 개개의 기사와 사진, 컷, 광고 등을 한 페이지에 모두 모아 편집하는 작업이다.

대칭 (對稱, symmetry)

조형상 형상의 구성이 일정한 선 또는 점을 중심으로, 양쪽의 위치나 형상이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인화지 (大型印畫紙)

사진 인화지의 판형의 하나로 14×17인치 이상의 인화지를 가리킨다.

대화방식 (對話方式, conversational mode)

사용자가 컴퓨터로 서로 정보와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괄처리(batch processing)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도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대화방식에서는 사용자는 단말에 출력되는 컴퓨터에서 결과를 보고 다음의 처리 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착오의 발견도 용이하며, 또 인간의 창조성을 크게 살린 컴퓨터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판되고 있는 퍼스널컴퓨터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대부분이 대화방식의 것이다.

WWW (world wide wed)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의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CERN ; European Laboratory for Particle Physics)에서 처음 고안되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문자를 기반으로 전송하던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과는 달리 윈도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최대한 살려 사진과 그래픽, 음성과 동영상 등을 하이퍼텍스트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하이퍼텍스트 자료들은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 이러한 문서들은 HTT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월드와이드웹은 기존의 각종 인터넷 서비스인 고퍼, FTP, WAIS, 아키 및 유즈넷 등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마치 월드와이드웹이 곧 인터넷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편리하고 사용이 쉬운 장점 때문에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인터넷을 누구라도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오늘의 인터넷 열풍을 몰고 온 것이다. 월드와이드웹을 직역하면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거미줄이라는 뜻인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인터넷이 마치 거미줄처럼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연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월드와이드웹은 줄여서 WWW, W3 또는 Web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더블톤 (duograph, duotone, duplex half-tone)

한 장의 사진 원고에서 스크린 각도가 다른 두 장의 망 네거티브를 촬영, 판을 두 판 만들어 2색 또는 농담이 다른 잉크로 중첩 인쇄한 것을 말한다. 2색일 때는 먹판과 색판이 많은 데 2색으로도 인쇄된다. 각 색판의 빗썸량을 변화시켜 망점 %를 변화시키면 색조가 변하는데, 먹판이 들어가지 않으면 콘트라스트가 약해 사진판의 더블 톤은 농담 계조와 농도가 우수하며 오프셋 인쇄도 중후하고, 풍부한 농담조를 가진 사진 인쇄가 된다. 주요색과 보조색의 짝지움은 먹색과 암갈색, 먹색과 회색, 녹색과 글색, 파랑과 빨강이며 스크린 각도는 주요색 45도, 보조색은 75도로 주요색의 망점 배분은 하이라이트가 0%, 새도가 97% 보조색은 하이라이트 10%, 새도 80%가 되도록 한다.

(유의어 : 듀오톤)

데스크톱 퍼블리싱 (卓上出版, DTP, desk-top publish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서, 소책자, 서적 등의 인쇄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데스크톱 출판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워크스테이션(WS)을 이용하여 출판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그것을 레이저 인쇄기 등에 출력하여 인쇄한다. 출판사나 인쇄소에 갈 필요 없이 책상 위에서 출판을 한다는 의미로 탁상출판이라고 한다. 탁상출판은 실제로 인쇄될 문자나 그림의 모양을 화면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위지위그(WYSIWYG)를 실현한 매킨토시 컴퓨터와 레이저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의 중요한 응용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탁상출판은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사용하여 몇 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이나 그림, 사진 등의 소재를 워드 프로세서, 묘화 프로그램, 페인트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스캐너 같은 사진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 과정이다. 이와 같이 작성되어 입력된 소재들을 편집하는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는 흔히 탁상출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일종의 페이지 구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페이지 전체의 모양을 보면서 소재들을

적당히 배치하고 각 소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듬어 인쇄용 원고를 완성한다. 마지막 단계는 인쇄 과정으로, 완성된 인쇄용 원고를 레이저 인쇄기에 출력하거나 이미지세터에 출력함으로써 소량의 인쇄 또는 보통 품질의 인쇄로부터 고품위의 서적 인쇄까지 할 수 있다. (유의어 : 기업출판)

데이터 (data)

인간이나 컴퓨터가 통신, 해석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형성한 사실 및 개념의 표현을 어떠한 조건과 값, 또는 상태로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를 가리킨다. 또한 알파벳 문자 또는 기호로부터 피연산자(operand), 명령, 또는 요소의 집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유의어 : 자료)

데이터뱅크 (data bank)

①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모임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보급, 발달에 따라 방대한 정보량 안에서 적합한 정보를 요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항상 데이터를 정리해 둔 것이다. ②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리킨다(유의어 : 정보은행). 일반적으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기억장치에 축적되어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파일이다. 데이터의 뱅크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보통 다수의 이용자가 원격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실시간 시스템(real time system)에 의해 갱신된다.

데이터베이스 (data base)

각종 정보를 집적(集積)하여 놓고 필요할 때에 알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호 연관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어느 특정 조직의 응용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통합 저장한 운영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그

중복성을 통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자료 구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여러 계층의 데이터 독립성을 구현시킨다. 즉, 공용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램 기능, 데이터 사전의 정교성은 시스템과 제작자에 따라 다르다.

데이터압축 (data compression)

파일이나 통신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 집합의 크기를 절약하거나 전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좀 더 적은 수의 비트를 사용하도록 부호화하는 것이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된 비트열 또는 패턴을 삭제하고 대신 좀 더 적은 수의 비트 또는 요약 형식으로 부호화하며, 요약 형식을 복호화하면 원래의 데이터가 복원된다. 압축 방법에는 무손실 압축 방법과 손실 압축 방법이 있다. 문장이나 부호 데이터, 수치 데이터 등의 압축에는 반드시 무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영상이나 음성 압축에는 손실 압축 방법도 사용한다.

데이터엔트리 (data entry)

컴퓨터의 한 회선에 입력되는 자료나 항목이다. 데이터엔트리의 일반적 방법은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방법이지만 중간 기억매체에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키 투 플로피디스크(key to floppy disk)라던가 키 투 디스크(key to disk)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람이 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OCR장치가 사용된다.

데이터전송 (data translation)

제관용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원격지로부터 또는 원격지로 보내는 경우, 컴퓨터의 통신기능을 사용하고 통신회선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다. 데이터를 일괄하여 보내는 것을 배치(batch) 전송이라 하며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보내는 리얼타임(realtime) 전송이 있다.

데이터파일 (data file)

데이터 처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의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천공카드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의하여

데이터파일이 구성되어 테이프파일, 디스크파일 등으로 불려지지만 이것은 파일 매체에 대한 총칭일 뿐, 업무면에서 지불금파일, 재고파일 등으로 불린다.

도금식평요판 (鍍金式平凹版, zinc-plating deep-etch plate)

부식식(腐蝕式) 평요판과는 반대로 비화선부를 몇 마이크론의 두께로 도금하여 판면을 평요판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아연판에 빛찍하거나 전사하여 보통의 평판을 제판한 후, 판면을 질산명반 또는 구연산으로 닦고 전해조에 넣어 판을 음극으로 한 다음, 황산아연, 황산암모늄, 염화암모늄 등으로 된 도금액을 사용하고 아연을 양극으로 하여 전기분해하면 내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1911년 휴브너가 특허를 얻었다.

도면판독장치 (圖面判讀裝置, graphic read device)

지도나 설계도 그 밖의 도면에 쓰인 도형, 문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닌 장치를 말한다. 태블릿(tablet)과 키보드를 조합시킨 방식 외에 이미지리더(image reader)에 의한 이미지로서 도면 정보를 집어 넣은 다음에 도형이나 문장을 인식하여 코드화하는 도면 판독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도면을 스캐너 등으로 판독하여 이미지 데이터화하는 장치와 이미지 데이터에서 선도형, 문자, 심벌 등을 인식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된 데이터는 CAD시스템이나 매핑 시스템(mapping system) 등에 입력된다.

도큐멘테이션 (documentation)

현장조사로부터 개략적인 시스템 설계, 세부적인 설계, 프로그램의 완성 단계까지의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문서화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문서에 의해 인수인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리자가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유의어 : 문서화)

도큐먼트 (document)

일의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즉,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그 이후의 여러 과정이 작성되는 모든 기록을 가리킨다.

도트매트릭스 (dot-matrix)

출력장치로서 인자(印字) 또는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형(字形)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하나이다. 가로, 세로 각각 여러 개의 점(dot)을 매트릭스(matrix)상으로 배치하여 그 적당한 조합을 흑색으로 하거나 또는 발광시키는 방법으로 자형을 만든다. 알파벳 대문자와 같은 단순한 자면으로 되는 것은 7×5정도의 매트릭스에 의하는 것이 많지만 한자처럼 복잡한 것은 최저 22×18정도가 필요하게 된다. 자형에 고품질이 요구될 때에는 더욱 많은 수의 도트가 사용된다. 비교적 간단한 장치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논임팩트 프린트나 브라운관 디스플레이장치에 채용되는 예가 많다. (유의어 : 점행렬)

도트분해 (dot separation)

문자와 컷 등의 화상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가 취급하기 쉬운 화소(dot)로 분해하는 것이다.

도트제너레이터 (dot generator)

다이렉트 스캐너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망점을 레이저광선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발생시키는 회로를 가리킨다. 도트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스캐너에서 일화소(一畫素)는 스크린선수, 스크린각도 등으로 일정한 $n \times m$ 개의 도트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트제너레이터는 이 도트의 on-off 패턴을 스크린선수, 스크린각도 및 해당 화소의 망비율로 계산해서 발생시켜 레이저빔을 제어한다.

도트 폰트 (dot font)

점의 집적(集積)으로 구성된 문자로 컴퓨터에서 문자(한자, 한글, 기호) 등을 고속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문자를 정방형의 매트릭스 모양으로 분해한 문자를 말한다. 통칭 도트 폰트라고 하는데, 이들 분해한 문자의 흑백 부분을 0과 1 디지털 신호로 각각의 문자를 코드화하여 기억장치에 기억시켜 둔다. 이것을 폰트 디스크라 한다. 분해밀도에 따라 문자의 선명도가 다른데, 인쇄용 원고 작성용 전산사식기에서는 100×100도트나 120×100도트가 일반적이다. 도트분해의 밀도가 거칠면 사선 등이 계단 모양으로 눈에 띄므로 문자규격이 커질수록 분해밀도는 200×220도트라든가 그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도트 기억방법에는 런랜스법, 벡터법, 편차법이 있는데 전산사식 시스템의 CRT사식기에서는 런랜스법과 벡터법이 사용되고 있다.

도트 피치 (畫點間隔, dot pitch)

디스플레이상에서 표시되는 도트간의 거리를 가리킨다. 컴퓨터의 화상을 점(dot)의 모임으로 표현한다.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경우에도 도트의 집합이 화면에 나타난다. 도트 피치가 가늘면 가늘수록 화면이 정밀하며 아름답고 보기 쉬운 표시가 가능하나 당연히 가격도 높아진다.

도형인식 (圖形認識, graphic recognition)

패턴 인식의 하나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모양, 윤곽 또는 형상 등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특징을 추출하여 도형의 식별을 한다.

동시대비 (同時對比, simultaneous contrast)

2장의 색이 서로 다른 색지를 같이 놓고 볼 때와 이것을 따로따로 볼 때와 다른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색은 따로따로 보았을 때보다도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보색의 경우에는 서로 선명도가 더해 보인다. 또 명암의 차가 있을 때에는 밝은 쪽은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양자의 경계에서 특히 심하다. 경계선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 차는 감소한다. (반대어 : 계시대비(繼時對比))

둥근 고딕 (round gothic)

고딕체 글자의 획끝을 모가 나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한 것이다. (유의어 : 환고딕)

둥근 스크린 (circular screen, rotary screen)

둥근 모양의 스크린으로 유리로 만든 망점스크린과 콘택트 스크린이 있다. 유리 스크린은 각도를 표시하는 눈금이 있는 틀에 끼워, 스크린을 돌려 각도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다. 콘택트 스크린은 스크린 둘레에 있는 펀치 구멍이 각도를 나타내며, 그것을 제판 카메라의 필름 진공관에 끼워 사용한다. 또 콘택트 스크린에 각도 눈금이 있는 틀을 끼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둥근 스크린은 주로 컬러제판의 각도 조절에 사용한다.

듀플리케이션 필름 (duplicating film)

포지티브상에서 포지티브 상을, 네거티브 상에서 네거티브 상을 얻기 위한 복제용 필름이다. 컬러용과 단색용이 있다. 컬러는 원고의 계조보정이나 치수의 조정, 단색은 좌우 역상을 얻고자 할 때나 선풍의 컨트롤 등에 이용된다.

드라이다운 (dry dawn)

일반 사진에서 물에 젖은 상태의 사진 감광재료는 건조되면 젤라틴이 변형하여 건조후의 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다. 젤라틴 유체의 팽윤, 수축의 영향에 의해 유체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현상이 이동하여 일어난다. 또한 종이에 인쇄한 인쇄물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수지나 용제분이 침투하여 인쇄표면의 광택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인쇄 직후의 인쇄물은 안료, 수지, 용제의 밸런스 유지로 도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광택이 좋으나 건조과정에서 인쇄표면의 광택이 떨어진다. 오프셋잉크나 볼록판잉크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침투 건조형 잉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드라이 레지스트 필름 (dry resist film)

포토프지스트(photo resist)를 필름 모양으로 한 것이다. 용액형 포토 레지스트를 폴리에틸렌, 텔리프탈레이트 필름 등의 지지체 위에 균일한 두께로 도포 건조하고 또 그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필름으로 씌운 것이다. 지지체 필름을 벗기면서 가공 대상물에 포토 프지스트 필름을 가열 압착하고, 표면의 커버 필름을 벗기지 않고 그 위에 패턴을 노광한다. 노광 후는 커버 필름을 벗기고 현상처리를 한다. 용액형 포토 레지스트와 같이 도포할 필요가 없고, 또 균일한 막두께를 얻을 수 있다.

드럼스캐너 (drum sc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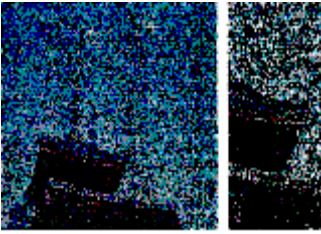
스캐너 내부의 드럼(유리처럼 투명한 아크릴 실린더)이 회전하면서 스캐닝하기 때문에 드럼스캐너라고 한다. 원래 드럼 스캐너는 원색분해시스템에서만 사용했고, 가격도 역대에 달해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되는 전문 컬러 출력소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맥을 이용한 DTP가 일반화되어 맥이나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데스크톱

드럼스캐너가 출시되면서 중소규모의 출력소에서도 갖추게 되었다. 사진이나 출판물 등의 반사원고나 필름 등의 투과성 슬라이드 원고를 모두 스캔할 수 있지만, 입력원고가 드럼(실린더)보다 커서는 안 되고 드럼 표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미술관련 화보집이나 최고급 인쇄물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원고는 주로 드럼 스캐너를 통해 입력한다. 원리는 입력 원고를 통과하거나 반사된 빛을 분석하여 디지털로 변환한다. 스캔 과정은 입력 원고를 원통형 드럼 바깥면에 투명한 테이프로 부착시키거나 오일 등을 발라 밀착시킨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회전시킨다. 드럼내부에는 크세논램프이나 할로겐램프 등의 강한 빛이 센서에 장치되어 있어 원고를 비춘다. 투과성 원고의 경우, 투사된 빛이 이미지를 지나면서 각기 다른 광도를 갖게 되며 이 광도를 헤드에서 분석한다. 반사원고의 경우, 빛이 원고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강하게 일정한 빛을 쏘아 반사도를 헤드에서 분석한다. 이미지의 미세한 점에서 나온 투과된 빛이나 반사된 빛은 회전하는 드럼의 바깥을 따라 움직이는 센서 단위로 입력된다. 이 빛은 빔에 대해 45°로 각진 반투과성 혹은 이색성 거울(dichroic mirror)를 직접 통과한다. 통과된 빛 중 어떤 빛은 각각의 거울에서 반사되고, 나머지는 다음 거울로 전해진다. 반사된 빛은 Red, Green, Blue 필터와 광전배증관인 PMT(photo multiplier tube)로 알려진 세 개의 광학적 증폭기를 통과한다. 그리고 A/D 변환기를 통하여 아날로그 전압을 디지털 데이터로 분해한다.

디더링 (dithering)

컴퓨터 그래픽스(CG)에서 표시 장치나 인쇄기의 해상도를 초과하는 다계조(多階調) 색의 화상을 근사하게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화상의 각 면을 다른 계조 색의 도트 집합으로 처리하는 기술에 의존한다. 흑백 표시 장치나 인쇄기에서는 화상의 어떤 임의의 면내의 흑색 도트와 백색 도트의 비율에 따라서 화상 전체가 특정한 계조의 회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컬러 표시 장치나 인쇄기에서는 적색 도트와 백색 도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조의 분홍색으로

보이게 한다.



디더링은 하프톤 화상(halftone image)과 비슷한 화상을 생성한다. 디더링은 저해상도에서 컴퓨터 도형 처리의 사실감을 높이고 매끄럽지 못하고 계단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윤곽선이나 대각선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흔히 디더법이라고도 한다.

DDCP (direct digital color proofing)

인쇄업계에 있어서 컬러화상처리의 토털레이아웃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CEPS(color electronic prepress system)로 처리한 컬러 디지털데이터를 망점계조로 종이에 직접 출력하는 색교정 시스템이다. 출력장치로서는 잉크젯프린터, 승화형(昇華型) 전사프린터, 습식 전자사진 프린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디바이스 (device)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의 통제하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오디오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프린트, 스캐너, 하드 디스크 등의 주변 기기를 가리킨다. 이들 주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디바이스 드라이브(drive) 또는 간단히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선택자에 표시되는 LaserWriter, ImageWriter 등의 프린터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를 컨트롤하기 위한 CD-ROM 드라이브, 조절판의 마우스, 키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서브시스템(subsystem)은 독자적인 제어 소프트웨어인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필요로 한다.

디버그 (debug)

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② 컴퓨터 자체에서 오동작을 감지하고 고치는 것. 고장 진단 루틴과 관계된다. ③ 프로그램이 적절히 일하는지를 컴퓨터에서 시험하는 것.

잘못이 발견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추적하여 고친다.

디브이디 (DVD, digital video disk)

영상이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하는 디스크이다. 보통 영화 한 편에 해당하는 약 135분의 영상과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지름 12cm 크기의 광디스크, 콤팩트디스크(CD)와 같은 지름의 디스크에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준의 화질로 영화를 담을 수 있다. 1996년 가을부터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 플레이어와 영화 소프트웨어가 발매되기 시작했다. DVD 1장의 기록 용량은 일반 CD의 6~8배가 된다. 광원으로 CD용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파장 780nm 정도: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보다도 파장이 짧은 적색 반도체 레이저(파장 635~650nm)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집광(集光)하는 대물렌즈의 개구수(開口數)를 높이는 등 기록 용량이 증가되었다. 영상 데이터는 국제 표준 방식인 엠페그 2 표준 규격(MPEG 2)으로 압축한다.

디스켓 (diskette)

자성 물질이 입혀진 얇고 유연한 원판으로 플로피 디스크 장치의 정보 저장 수단이다. 디스켓은 3.5인치, 5.25인치, 8인치 등의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으며 1장에 150만 자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입력 매체 비용이 절감되고 저장된 자료의 변환이나 수정이 용이하며 자료를 읽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디스크 (disk, disc)

얇은 금속원판의 양면에 자기막을 씌우고 표면에 가는 트랙을 동심원으로 만들어 데이터를 트랙에 점모양으로 자화(磁化)시켜 기록한 것이다. 1조가 1~11장으로 구성되며, 기록면은 2~20장이다. 또한 표면이 자성 재료로 피막된 회전 원판과 자기헤드를 조합하여 정보를 기억시키는

대용량 기억장치로서, 임의 호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로 이용되는 직접 등속 호출 기억장치이다. 플렉시블디스크 또는 플로피디스크를 간단히 부르는 것이다. 미니컴퓨터나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주로 이용된다.

디스플레이 (display)

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흔히 표시라고 한다. ② 시각적으로 표현 또는 표시된 데이터. ③ 일반적으로 전시하는 것, 또는 전시물을 말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출력장치의 일종인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④ 본문을 행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면 전체를 보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되는 커다란 글자나 사진, 일러스트 등이 조형적으로 레이아웃 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인쇄물에 사용되는 서체를 디스플레이 서체라 한다.



디스플레이타입 (display type)

표제용, 광고용 등의 대형 혹은 굵은 구분 활자 서체의 총칭이다.

디아조감광액 (diaz sensitizer)

PS판이나 와이프온판에 쓰이는 유기감광액이다. 구조상 다음의 3종으로 대별된다. ① 디아조 화합물에 유리콜로이드를 혼합한 것으로 디아조늄염이 빛에 의해 분해하여 유리콜로이드 (예 : 젤라틴, PVA, 페놀수지)를 물 혹은 용제에 불용화시킨다. ② 수용성디아조늄염의 수지에 빛이 작용, 광분해하여 타르모양의 친유성 물질을 만들고 이 생성물 자체가 평판의 화선부로 된다. 대표적인 것에 파라아미노디페닐아민을 디아조화하여 다시 포르말린과 축합(縮合)하여 된 디아조 수지가 있다. ③ 평요판과 같이 포지티브필름에서 판(포지티브 화상)을 만드는 포지티브-포지티브형 감광액으로 퀴논디아지드형 화합물을 이용한다. 퀴논디아지드류가 광분해하여 물에 의해 5원환 카르복실산으로 된다. 따라서 노광에

의해 생긴 친수기(-COOH)에 의해 알칼리나 물에 가용성으로 된다. 이 종류의 감광액은 중크롬산 감광액과 달라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적고 암반응이 적으므로 보존성이 좋다.

디아조감광제 (diaz photosensitive materials)

빛에 감광하는 디아조 화합물이다. 포지티브 감광지나 제판용 감광제로 쓰인다. 질소 원자 2개로 된 디아조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은 자외선에 의해 분해하며 디아조기를 잃는다. 이때 디아조늄염은 이온성이 없어져 물에 불용성으로 되며, 혹시 수산기를 가진 콜로이드 분자가 공존하면 그 수산기와 반응하여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또한 o-퀴논디아지드 화합물은 자외선에 의해 방향환(芳香環)이 열려 카르복실산 유도체로 되어 알칼리에 녹게 된다. 오프셋 PS판에 널리 쓰이는 것은 중크롬산 콜로이드와 같이 암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안전하기 때문이다. PS판용 디아조 감광제로는 네거티브형에는 p-디아조디페닐아민의 포르말린 축합물을 또 포지티브형에는 1-나프트퀴논-2-디아지드 유도체를 쓴다.

디아조감광지 (diaz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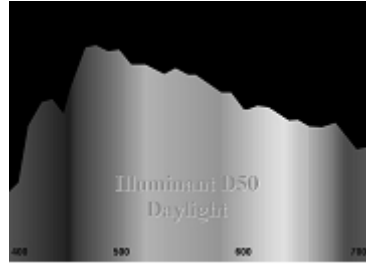
디아조 화합물의 감광성을 이용한 복사 감광지이다. 어떤 종류의 디아조 화합물은 노광되면 분해되는데, 미노광 부분은 커플러와 결합하여 알칼리의 상태로 발색한다. 그러므로 포지티브를 노광하여 바로 포지티브 화상이 얻어지므로, 그라비아 제판의 교정이나 일반 사무용 복사에 사용되고 있다. 내장한 발색제(coupler)의 종류에 따라 청, 보라, 적 등으로 발색한다. (유의어 : 포지티브 감광지)

디아조필름 (diaz film)

폴리에스테르나 폴리 아세테이트 등의 투명한 베이스 필름상에 디아조늄염과 발색제 성분을 포함하는 감광층을 덧칠한 감광 필름으로서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필름, 제2원도, OHP 필름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원고와 감광필름을 밀착시켜 원고측으로부터 자외광 조사(照射)를 한 후 암모니아 가스 따위에 접촉시킴으로써 발색성의 화상이 형성된다.

디아조화합물 (diazo compound)

- 어떤 화합물 속에 2개의 질소가 결합한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PS판의 감광액이 하나로 방향족(芳香族)의 디아조늄염(ArNX)이 쓰인다. 디아조화합물을 수지 바인더에 녹여서 자외선을 쬐이면 경화하여 레지스트로 된다.



데이터 테이프 (DAT, digital audio tape)

백업 테이프로 대용량의 데이터 백업을 위해 사용된다. 슈퍼컴퓨터나 메인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백업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CD-ROM의 등장으로 DAT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디에틸렌글리콜 (diethylene glycol)

무색, 무취로서 단맛이 있는 흡습성의 점액체로 비등점이 245°C, 비중이 1.117이다. 물, 알코올, 아세톤, 글리콜 등과 임의의 비율로 혼합하고 방향족 탄화수소, 석유계 탄화수소, 4염화 탄소 등에는 녹지 않는다. 용제로서 니트로셀룰로오스나 염료 등을 녹이는데 대개의 유지, 수지류는 녹이지 못한다. 에스테르 및 에테르 용제로서 쓰이며, 또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원료도 된다. 스티프세트 잉크용 수지의 용제로 쓰인다.

D50 조명 (D50 illuminant)

가장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가지며 그래픽아트와 이미지, 인쇄분야에서 표준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원의 red, green, blue 비율이 가장 균등하다. 국내에서는 옐로 계통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색온도가 높게 설정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이트는 블루가 약간 가미된 상태를 흰색으로 인지하고 있다. 색온도가 5,000K에 대한 스펙트럼 에너지 커브로 정의한다. 또한 일출 혹은 일몰시의 주광의 색온도이다.

디지털타이저 (digitizer)

컴퓨터 입력 장치의 한 종류이다. 직사각형의 널따란 평면 모양의 장치와 그 위에서 사용자가 손에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펜 모양의 스타일러스 또는 단추(button)가 달린 라인 커서 장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펜이나 커서를 움직이면 그 좌표 정보를 밀판이 읽어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 기억 장소로 전달하고, 스타일러스를 누르거나 위치 표시표의 단추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명령이 수행된다. 그림, 도표, 설계도면 등을 입력하는데 사용한다. (유의어 : 자동작도입력기)

디지털신호 (digital signal)

전기적인 2가지 상태로만 표현되는 신호이다. 2가지 상태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0 또는 1의 2진수에 대응된다. 데이터 전송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그냥 보낼 수도 있으나 대개는 변복조 장치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보내고, 수신 측에서는 그것을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복조하여 받는다.

디지털전송 (digital transmission)

음성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신호나 컴퓨터 등과 같이 이미 디지털 신호화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신호는 1인가 0인가를 식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잡음에 강하며, 잘못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어되는 신뢰성이 높은 전송 방식이다.

디지털카메라 (DSC, digital still camera)

렌즈를 통하여 찍힌 피사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내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소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지고, 이 신호는 A/D컨버터를 통하여

다시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후 컬러보정과 이미지 압축과정을 거쳐 내장된 필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저장된 디지털 이미지는 각종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PC나 프린터 등으로 전송시켜 결과물을 빨리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뒷면에 LCD(liquid crystal display) 화면이 있어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찍은 사진을 LCD 화면으로 볼 수도 있어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울 수도 있다.



디지털폰트 (digital font)

컴퓨터나 전산사식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문자이다. 종이나 필름상에 작성되어 있는 폰트패턴을 스캐너나 TV카메라 등으로 판독하여 부호화한다.

디지털화상 (digital image)

화상을 화소(畫素)라고 불리는 작은 점으로 분할하여 각 화소에 있어서의 농담의 값을 정(整)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디지털화상처리 (-畫像處理, digital image processing)

화상 신호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화상의 입출력 처리, 축적, 전송에 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이다. 전송에 관해서는 화상 부호화로 하여 구별될 때가 있다. 기본적 처리 내용은 화상의 강조, 복원, 모서리선의 검출, 영역 분할, 변환 처리 등이다. 또 처리 목적으로는 보기 좋은 화상을 얻는 것, 이용 목적에 적합한 화상을 얻는 것, 특징의 추출, 기술, 계측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의료 화상, 위성 화상, 산업용 화상 등 광범위한 적용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고 있다.

디토마크 (ditto mark)

구문에 있어서 동일어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호 “ 또는 „를 가리킨다. 약자로는 d 또는 d°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인치, 시간의 초 따위를 나타내는 단위기호, 숫자 기호이므로 구미에서는 반복 기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DTPR (desk top presentation)

DTP를 제비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단색뿐만 아니라 컬러를 포함하는 DTP시스템을 가리킨다.

디퍼렌셜마스킹 (DM, differential mask)

스캐너의 디테일 강조 기구의 하나이다. 단계적으로 주변부일수록 진한 농도를 지닌 커다란 에퍼처(aperture)를 개재하여 흐림신호를 만들어 주신호와 겹쳐서 선예화된 화상 신호를 얻는다. 화상의 샤프니스를 광범위에 걸쳐서 매끄럽게 나타낼 수 있다.

디포머 (deformer)

스캐너에서 자연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변형하는 작업이다. 토털스캐너에서는 화상 처리를 하여 원래의 원고보다 변형한 특수 화상을 얻는 일을 가리킨다. 포스터나 특수한 광고의 표현에 이용된다.

디퓨전시트 (diffusion sheet)

밀착 사진의 광확산용 시트로 약 100nm 정도의 합성수지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다. 사용 방법은 흐림 마스크법에 컬러필름과 마스크용 감광재료 사이에 삽입, 확산광으로 노광하여 마스크 화상을 만든다. 확산 노광상은 원화보다 약간 크게 되므로 마스크하기 쉽다. (유의어 : 확산시트)

DPI (dot per inch)

디지털방식의 프린터, 전자조판 시스템의 타이프세터, 이미지세터, 표시장치 등의 해상도이다. 1인치 당 망점(dot) 수로 표시한다. 보통레이저프린터의 dpi의 범위이지만 인쇄용 판고의 출력기(인화지 필름)에서는 1,000~3,000dpi의 해상도이다. 해상도가 400dpi라던가 1,000dpi라고 하는 것은 출력기의 출력할 수 있는 해상도로서 인자(印字) 출력 결과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가령 1,000dpi라고 하여도, 출력기의 인자 기구가 1/1,000인치

도트를 1/1,000인치로 인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상의 것일 뿐, 어느 정도의 도트로 인자할 것인가는 메이커에 따라 다르다. 2/1,000도트로 인자하고 있어도 출력의 해상도는 1,000dpi이며, 출력기의 해상도와 도트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DIN (Deutsche Industrie Normen)

독일공업규격의 약자이다. 독일공업품규격위원회의 한 분과인 인쇄규격위원회(NAGRA, Normenausschuß für Graphische Gewerbe)가 제정한 인쇄용지, 인쇄잉크, 인쇄기계, 활자, 색채 등의 규격 및 DIN감광계와 그 표시법 등이 이에 속한다.

단감광도 (DIN speed)

사진 감광재료의 감광도 표시법이다. 독일공업규격(DIN)으로 결정되어진 감광도 표시법의 하나로 $DIN\text{감광도} = \log(0.49 \times 1/\text{출력농도})$ 0.1에 대응하는 광량치)로 규정하고 있다.

따붙이기 (paste-up)

① 대지(臺紙)에 전산조판이나 사진식자를 한 문자와 사진, 그림 등을 붙이는 것이다. 이를 대지작업이라고도 하며, 일본말로 대지바리(臺紙貼り)라고 한다. ② 평판인쇄판을 만들 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문자나 사진 등의 필름을 1 페이지 단위로 잘라 붙이는 일을 말한다. 일본말로 고바리(小貼り)라고 한다. ③ 평판인쇄용 사진제판에서 선화(線畫)나 사진 등의 필름 또는 스트리핑 필름(stripping film)의 막면을 대지필름(base film)에 붙이는 일을 말한다. 모아붙이기, 터잡기라고도 하며 일본말로 오바리(大貼り)라고 한다. ④ 그라비아인쇄 제판에서 문자나 사진 등의 포지티브 필름을 대지필름에 붙여 제판용 원판을 만드는 일 등을 말한다.